

보고서

’러시아의 신국가 전략과 한-러 경제협력방안’

2008. 5

국제무역연구원
무역전략실

김 영 우

〈 요약 〉

- 5월 7일 8년 만에 푸틴이 물러나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신임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러시아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음
 - 지난 2월 당시 대선에서 메드베데프후보는 신국가발전전략으로 제도화(institutions), 인프라구축(infrastucture), 혁신(innovation), 투자(investment) 등 이른바 ‘4I’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러시아 사회와 경제를 선진화해 나갈 것을 천명
- 1998년 경제위기이후 러시아경제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연 평균 6.9%의 고도성장을 지속
 - 러시아경제는 에너지 의존심화, 네덜란드 병, 10%에 가까운 지속적인 물가상승, 지역의 불균형 성장, 소득분배 불균형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러시아는 당분간 유가 상승과 달러약세, 오일머니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가치의 상대적 안정으로 인해 잠재성장율(4-6%, ECB 추정)에 이르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한-러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인접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극동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정상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기업(upstream)과 투자·건설기업(downstream)이 자원 및 SOC 개발 등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혁, 혁신, 인프라 구축, 투자확대의 이른바 4I 정책은 신임대통령의 정책방향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향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진출전략으로는 △4I정책에 주목 △개발프로그램에 다국적기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투자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자원개발과 유관산업에 공동진출하는 방안이 필요함.

〈 목 차 〉

1. 메드베데프 체제의 등장	1
2. 경제동향과 당면과제	1
가. 경제동향	2
나. 당면과제	3
3. 신국가전략	5
가. 제도화와 제도개혁	5
나. 혁신	5
다. 인프라의 구축	6
라. 투자의 확대	6
4. 한-러 경제관계	7
가. 교역	7
나. 투자	8
다. 자원개발	9
5. 한-러 경제협력방안	10
가. 4I 정책에 주목	10
나.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 참여	11
다. 투자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12
라. 자원개발 유관산업 공동진출	13

붙임자료 1. 러시아의 에너지정책

붙임자료 2. 대러시아 투자현황

1. 메드베데프 체제의 등장

- 5월 7일 8년 만에 푸틴이 물러나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신임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러시아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푸틴의 재임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푸틴의 개혁정책노선에 충실할 것임을 천명
 - 서방언론들은 푸틴의 후계자인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에 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푸틴이 총리로서 수렴청정형태로 러시아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메드베데프 신임 대통령은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살려 점차 푸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러시아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
 - 지난 2월 당시 대선에서 메드베데프후보는 신국가발전전략으로 제도화(institutions), 인프라구축(infrastructure), 혁신(innovation), 투자(investment) 등 이른바 ‘4I’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러시아 사회와 경제를 선진화시켜 나갈 것을 천명
- 향후 러시아 경제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4I 정책에 따라 변화가 예상됨

2. 경제동향과 당면과제

가. 경제동향

- 1998년 경제위기이후 러시아경제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연 평균 6.9%의 고도성장을 지속
- 국내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수출입과 외국인투자 등 대외부문도 호조

- 작년도 수출은 전년 대비 17.2%가 증가한 3,555억 달러, 수입은 37.3%가 증가한 2,234억 달러를 기록
-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은 1999년 280억 달러에서 2007년 10월말 현재 4,479억 달러(세계 3위)에 이름
- 2004년 84억 달러였던 외자유치액도 작년 879억 달러로 급상승

□ 최근 러시아의 고도성장요인에 대해 IMF보고서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루블화의 약세 △에너지산업의 호황 △정치안정에 따른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적 기대(positive expectation)를 들고 있음

— 1월말 다보스포럼에서 당시 메드베데프 부총리는 러시아의 GDP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하여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으며, 2009년에는 경제규모가 6위에 진입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

<주요 거시경제 지표>

지 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인구(백만명)	145.0	144.2	143.5	142.2	142.0
GDP(10억 \$)	432.8	582.3	766.0	979.4	1,286.0
GDP성장율(%)	7.3	7.1	6.4	6.8	8.1
1인당 GDP(\$)	3,000	4,060	5,361	6,873	9,056
소매물가상승율(%)	12	11.7	10.9	9.0	9.0
실업율(%)	8.9	6.1	7.7	6.7	5.8
수출(백만\$)	134,400	182,000	243,600	302,000	355,501
수입(백만\$)	74,800	94,800	125,300	164,500	223,411
경상수지(백만\$)	35,410	58,514	84,443	95,323	78,302
외채(억\$)	1,654	2,114	2,585	3,097	3,848(7월)
외국인투자(억\$)	297.0	405.1	537	551	879(9월)
외환보유고(억\$)	769.4	1245.4	1,822	3,037	4,479(10월)
평균환율(루블/\$)	30.69	28.81	28.28	27.18	25.79

자료 : 러시아통계위원회,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재무부, EIU, CIA

나. 당면과제

1) 에너지분야 의존 심화

□ 러시아는 수출의 66%, GDP의 16%이상을 에너지부문에 의존하는 특수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혁이 불가피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2000년부터 13%의 단일소득세의 도입,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토지법, 노동법, 연금 등에 대한 개혁을 실시

— 또한 2004년 대규모 행정부처 재편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잘 알려지지 않음.

□ 에너지산업에 대한 의존이 계속되자 지난 2007년 2월초 푸틴대통령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경제(innovation economy)’로 전환을 역설

— 천연자원을 원자재로 수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제품 생산, 인프라 보강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조업 육성을 천명

— 식료품, 유통업, 자동차산업, 건설업 등을 러시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만드는데 주력

□ 에너지산업의 비대칭적인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각종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최근 에너지산업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여 대외관계의 마찰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 금년 초 △구소련 구성국가들에 대해 가스공급을 우대가격이 아닌 국제가격으로 인상하려는 압박 △이란이 제안한 ‘가스 OPEC’결성 제안을 전격수용(2월초)하여 서유럽을 긴장시킴.

※ 러시아와 이란의 가스매장량은 세계의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카르텔을 형성하면 세계시장에서 가공할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됨.

2) 네덜란드 병

- OECD가 제기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던 러시아경제의 ‘네덜란드 병’ 증세에 대해 아직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 지난 3월 발표된 유럽중앙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1.5-2%의 GDP성장을 가져왔으나 2002년부터는 유가상승은 수입증가로 이어져 유가상승이 GDP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 하는 비동조(de-coupling)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네덜란드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자원이동과 지출효과에 의해 △제조업 침체 △비교역부분 성장 △실질임금 상승 △실질환율 절상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Corden과 Neary, 1982), 러시아경제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그 외에도 10%에 가까운 지속적인 물가상승, 지역의 불균형 성장, 소득분배 불균형 심화 등이 러시아 경제의 당면과제임.
 -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지출의 증가, 고유가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생산요소의 가격인상, 국내 수요의 증가 등에 기인
 - 러시아 정부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은행 재할인을 인상, 유가 및 각종 세금의 인상 억제, 사회안정기금의 증액, 루블화의 안정화 등을 추진중
- 러시아는 당분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달러 약세, 오일머니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가치의 상대적 안정으로 인해 잠재성장을(4-6%, ECB추정)에 이르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경제전문가들은 러시아는 천연자원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지만 지금은 식품가공, 자동차 생산 등으로 투자가 다변화돼 앞으로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

3. 신국가전략

- 신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신국가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 임기중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을 것임.

가. 제도화와 제도개혁

- 러시아는 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부패의 원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각 부분의 제도화와 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임
- 이를 위해 관료 및 행정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강력한 추진한다는 입장임.
- 러시아는 8월로 예상되는 WTO 가입이후 EU와의 FTA협상에 나설 예정이며,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국내제도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판단

나. 혁신

- 장기간에 걸친 고도성장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의 압력,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
- 소득 불평등 및 경제의 부분별 불균형 성장을 해소하고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개편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예정임.
- 지하자원에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체질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중산층 양산을 통해 소득 불평등 개선 및 사회안정화를 추진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천연자원 가공시스템의 발전 등 에너지 분야 2차 산업육성, 항공, 조선사업에 대한 투자 등이 거론되고 있음.

다. 인프라의 구축

- 도로와 철도 등 물류망의 현대화, 전력산업의 개선 등을 통해 인프라구축에 노력할 것임을 천명
- 각 지역별 중장기 프로젝트 달성과 기초 인프라 건설에 역점을 둔 ‘2020프로그램’ 및 ‘2030프로그램’을 추진
 - ※ ‘2020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러시아를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든다는 전략으로 자원개발과 생산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제개혁프로그램이며, ‘2030프로그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2030년까지 원유생산량을 2005년 대비 25% 이상, 천연가스는 35% 이상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러시아는 GDP의 3% 정도가 물류망의 노후화로 인해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자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도로, 전력 등 산업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중
- 최근 중앙과 지방간 경제성장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극동시베리아지역과 남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라. 투자의 확대

- 에너지산업분야의 생산성 향상 및 영향력 유지를 위해 신규 매장지에 대한 탐사와 기존 유정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본과 첨단기술 도입이 필수적임
- 정부는 FDI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혁과 더불어 행정 비용을 낮추고, 법인세 감면 등 조세개혁을 구상
- 한편 러시아의 해외투자를 끌어들이고 에너지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을 실시(붙임자료1:러시아의 에너지정책 참조)

4. 한-러 경제관계

가. 교역

□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8대 수출대상국으로 전체 수출에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에 있어서는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14대 수입대상국임

— 한-러 교역을 보면 2001년 이후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록했던 무역수지 적자가 2006년 흑자로 돌아선 후 2007년에는 11억 달러로 확대

— 특히 2007년 수출은 56.2%가 증가한 80.8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주요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전망도 밝은 편임

<대 러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증가율 %)

	2004	2005	2006	2007
수출	2,339(41.0)	3,864(65.2)	5,179(34.0)	8,087(56.2)
수입	3,671(45.6)	3,937(7.2)	4,573(16.2)	6,977(52.6)
무역수지	-1,332	-73	606	1,110

자료: kita.net

□ 2007년 대 러시아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기기가 186.1%, 수송기계/차량이 91.5%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플라스틱, 선박/수상구조물, 기계류 등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87.6%를 차지

—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알루미늄, 수산물, 니켈 등 1차 산품 및 광산물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상위 5대 품목의 비중은 87.2%에 이릅니다

— 주요수출입품목을 살펴보면 상위 5대 품목이 87%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품목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 러시아 품목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품목명	수출액	증가율	품목명	수입액	증가율
수송기계/차량(87)	3,948	91.5	광물성연료(27)	3,718	136.1
전기기기(85)	1,232	186.1	철강제품(72)	1,013	62.9
플라스틱(39)	724	11.9	알루미늄(76)	691	-23.9
선박/구조물(89)	622	74.2	수산물(03)	422	22.1
기계류(84)	588	43.5	니켈(75)	240	-31.6
전 체	8,087	56.2	전 체	6,977	52.6

주: 품목분류는 HS 2단위 기준, 자료 KITA.net

나. 투자

- 최근 대러 외국인투자는 매년 3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상반기에 158%가 증가한 603억 달러를 기록

<2002-2007년 상반기 대 러시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억)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년 상반기
금액	198	297	405	537	551	603
증가율(%)	38.7	50	36.4	32.4	2.7	158

자료 : 러시아 통계 위원회

- 자동차, 전력, 석유화학, 제과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대러 투자진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2008년에도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진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
- 대러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높은 경제성장, 대외 신인도 제고 등에 따라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결과로 판단(붙임자료2. 대러시아 투자현황)

다. 자원 개발

1) 극동 지역 자원현황

-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석유매장량은 19억 톤으로 러시아 전체의 19.2%, 가스매장량은 7.5조 m³로 러시아 전체의 15.7%를 차지
- 이 지역 유전 탐사율은 7%에 불과하며 2006년 생산량은 러시아 전체 석유생산량의 0.1%인 0.7백만 톤에 불과함.

<극동지역 에너지 자원현황>

구분	석유	가스
전체매장량	99억 톤(세계 6위)	47.8조 m ³
극동지역 매장량	19억 톤	7.5조 m ³
생산량	4.7억 톤(세계 2위)	6,410억 m ³
수출량	3.2억 톤(세계 1위)	1,940억 m ³

자료: 러시아 통계청, 중앙은행(2006년말)

2) 우리나라 참여 프로젝트

가) 서캄차카 광구

- 서캄차카 광구는 한국석유공사가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Rosneft와 네덜란드에 현지법인을 설립(2005년 2월)하고 탐사작업을 시작하여 물리탐사를 마친 상태이며, 금년 6월부터 탐사정 시추(wells-location drilling)를 한 뒤 본격적인 생산은 2011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동 광구는 PSA계약방식¹⁾이 아닌 라이선스방식²⁾으로 계약체결
- 러시아와 한국이 6:4로 지분을 구성하고 Rosneft가 사업운영권을 소유하며, 최근 러시아의 자원민족주의 논란이 되는 전략적 광구가 아닌 점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임.³⁾

1) PSA(Production Sharing Agreement)계약은 석유나 가스 등 지하자원을 소유한 국가와 외국 투자자간에 체결하는 계약방식의 하나로서 지하자원을 소유한 국가가 자원개발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주로 채택하는 계약방식임. 투자자가 자원개발에 대한 탐사, 개발, 생산, 판매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 자원을 생산한 후 지출된 비용만큼의 생산물을 차감한 나머지 생산물, 즉 이익(todtksanf(profit production))을 자원을 소유한 국가와 투자자간에 정해진 비율로 나누는 계약형태임.

2) 라이선스방식은 탐사, 시추, 개발, 생산 등 진행단계별로 상업적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계약임.

- 한국기업이 채굴에 따른 100%의 리스크를 책임지며 상업적인 생산이 개시되면 Rosneft가 지분에 따른 수익배분을 요구할 수 있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리스크없이 60%의 지분권을 행사가능
- 현재 탐사단계까지 약 1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재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70%, 컴소시엄 참여자들이 30%를 조달

나) 이르쿠츠크 가스전

- 이르쿠츠크 가스전은 매장량이 8.4억 톤에 이르는 대형 가스전으로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가 2003년 11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나 Gazprom측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동 유전의 가스를 내수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추진이 중단된 상태임.
-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금년 4월부터 20년간 사할린 II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LNG를 연 150만톤 도입키로 했고, 2007년 12월 한-러 자원협력위에서 가스공사와 Gazprom이 동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가스를 송유관을 통한 공급방안에 대해 공동조사키로 합의

다) 기타

- 사할린 II 가스전 개발을 위해 삼성중공업이 해상 플랫폼 건설공사를 진행중
- 사할린 프리고르드노예 LNG 기지건설에 대우건설이 LNG 냉각 설비 철골·배관공사, 풍림건설이 원유·가스 가압설비 공사를 담당

5. 한-러 경제협력방안

가. 4I정책에 주목

- 러시아의 중장기계획은 대부분 2005-6년 사이에 채택되었고 예산은 2010년까지의 중기 예산운용계획에 반영되고 있음

3) 모스크바로부터 11,000km나 떨어져 있는 지리적 위치와 매장규모로 인해 중앙정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략적 광구로 인식되지 않음(www.res.rthz.ch, '08.1)

- 메드베데프의 등장으로 이러한 계획은 '4I'라는 정책브랜드로 나타나고 있어 이것을 집중 검토해야 할 것임.
- 4I정책은 푸틴의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푸틴의 경제정책을 계승한다는 대내외적 명분으로도 적합해 보여 임기중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나. 동북아 개발프로그램 참여

- 메드베데프 등장이후 전임 대통령과 다른 점은 동북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
- 동북아에 집중되는 주요한 일정으로는 △2008년 7월 G8 정상회담(홋카이도) △2008년말까지 중국의 다칭까지 연결되는 동 시베리아 파이프라인의 1단계공사 완료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극동 및 자바이칼 개발 프로그램이 본격화 △2012년 APEC 정상회담개최(블라디보스톡) 등이 있음.
- 취임이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극동 및 동북아지역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내부적으로도 극동지역에 대한 개발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신임 대통령은 극동지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교역 및 투자의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가 추진중인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개발프로그램 및 극동 시베리아 개발 계획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함.

다. 투자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 투자증진을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러시아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향후 투자진출을 원하는 우리기업들에게 러시아 경제동향, 시장동향, 입찰정보, 에너지 산업동향 등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
-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와 자바이칼 지역개발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 및 구체적인 전략수립이 요망됨.

- TSR-TKR, 전략망 연계,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캄차카 해상 광구 탐사사업 등에 대한 정보망을 확충
- 2012년 APEC 정상회담 및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 및 주변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적인 진출방안 마련
-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괄적인 한-러 경제협력관계의 구축이 절실
- 러시아측은 한국이 러시아의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대가로 한국의 심해가스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라. 자원개발과 유관산업 공동진출

- 러시아는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을 개발하여 유럽시장으로 한정했던 자원의 수출시장을 아·태지역으로 확대할 전망
- 2007년 9월 동부지역의 천연가스 통합공급시스템(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을 확정하고 동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천연가스를 개발하여 한국, 중국, 일본 및 미국 등지에 수출할 계획⁴⁾
- 러시아내에서 에너지 개발 사업을 계속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 국영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 구축이 절대적
- ※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매장지에 대한 개발권과 수출권한은 국영기업인 Gazprom과 Rosneft에 있고, 러시아 정부는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러시아내에서 개발권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음
- 러시아는 자원민족주의⁵⁾에 따라 사할린 III-V가스전에 대한 기존투자자들의 지분을 Gazprom에게 매각토록 한 바 있어 지분 매입이나 컨소시엄을 통한 참여가 절실함.

4) 푸틴대통령은 2007년 연방예산에서 극동 러시아 개발 프로그램에 240억 달러를 지원키로 확정(수은해외경제, 2008년 2월호)

5) 러시아는 2007년 1월 과거 PSA계약으로 체결된 사할린 I, II광구가 헐값으로 매각되었다고 판단하고 외국기업이 사업운영권을 가지고 있어 자국의 영향력이 없어지자 환경문제를 빌미로 사할린 II광구의 공사를 중단시키고 기존투자자의 다수지분을 Gazprom에게 매각토록 강제화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사할린 IV, V광구를 매입한 BP는 이를 매각할 계획임

- 러시아의 진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인 국영독점기업과 협력강화가 필수적임
- 사업 인·허가권은 정부간 협의를 통해, 기업간의 관계는 투자기업이 전담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
- 극동지역의 효과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4I정책의 기초를 잘 살피어 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되, 특히 투자초기부터 지역개발을 위한 인프라건설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러시아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제안서와 친환경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임

러시아의 에너지정책

1. 에너지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가. 에너지 산업의 국영기업 집중화

- 2007.3.27부터 5.11까지 실시된 파산 Yukos사 잔여 자산 경매에서 국영 Rosneft가 주요 자산 대부분을 매입함으로써 Lukoil(180만b/d)을 제치고 러시아 최대 석유 생산회사(220만b/d)로 등장
- 러시아내 석유생산 8위에 불과했던 Rosneft사는 '04. 12월 Yukos사의 최대 생산회사인 Yuganskneftgaz(100만b/d)를 인수함으로써 단숨에 러시아 3대 석유회사로 부상
- 러시아는 동부지역의 가스공급과 아태지역에 대한 가스 수출을 위하여 2002년부터 Gazprom 주도로 산업에너지부 등 정부기관, 에너지기업 및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동부 가스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왔으며 '07.9.3 산업에너지부령으로 승인
- ※ 동부 가스프로그램(동부 UGSS)은 서시베리아 지역에 운영중인 가스배관망을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으로 확대 구축하는 통합가스 공급계획으로 가스 생산을 위한 4개의 가스 생산센터 설치와 수송 및 공급 인프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30년까지의 기본계획임(예상 투자비 940억 달러)
- 사할린, 이르쿠츠크, 야쿠츠크 및 크라스노야르스크에 가스 생산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아·태지역에 대한 가스 수출은 사할린과 야쿠츠크센터에서 담당
- 동 프로그램의 정부승인으로 동시베리아 및 극동 통합가스개발 계획 추진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스 자원의 무기화를 위한 러시아 정부정책 수행 기관으로서 Gazprom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동부 UGSS계획



- 러 정부의 코빅타 가스전 개발권자인 RUSIA Petroleum(RP)에 대한 면허 위 반사항 제소 및 면허취소 경고 등의 압력에 힘입어 국영 Gazprom 사가 RP사에 대한 TNK-BP사 지분 62.9%를 7억~9억 달러에 인수키 로 합의('07.9월)
- 러 정부는 국영 Rosneft와 Gazprom에게 러시아 대륙붕 개발권과 외국인 투자자 선택권을 부여할 것임을 발표(6월)
- Gazprom사는 차얀다 가스전과 사할린-3 키린스키 등 유망 매장지 개발 권을 경매나 입찰없이 자사에 분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6월)
- 푸틴 대통령은 전략자산인 석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 석유제품 수출 확대, 파이프라인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Transneft(원유)와 Transneftproduct(석유제품) 양사의 합병안에 서명 (4월)

나) 외국 회사에 대한 통제 강화

- 대륙붕과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지(석유 7천만톤, 가스 50bcm)를 전 략적 매장지로 지정, 외국인의 투자를 49%이하로 제한하는 '지하자 원법' 개정 추진
- 해외 상장 석유회사들이 주가 부양을 위해 매장량 과대계상 등 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감독을 강화

- 자연감독청은 영국계 Imperial Energy사에 대해 매장량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지하자원청에 광권 취소를 요청(4월)
- 러시아 정부와 Gazprom사는 PSA로 개발중인 사할린 I광구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수출용이 아닌 극동지역 내수 공급용으로 전량 구입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CNPC와 연간 8억 톤을 수출하기로 MOU를 체결('06. 10월)한 ExxonMobil과 갈등 유발

2. 국제 에너지 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

가)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유지

- 2007년 5월 푸틴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정상과 Central Asia-Center(CAC) 가스관의 수송능력 확충과 Pre-Caspian Pipeline 건설에 합의
- Gazprom사는 투르크메니스탄산 가스 구입가격을 '07.1월부터 천입방미터당 60불에서 100달러로, '08년부터는 상반기 130달러, 하반기 150달러로 인상하고 '09년부터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기로 합의(11월)
- 러시아는 카스피해 연안 국가와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정상회담(10.16)에서 역내 경제협력기구 창설 추진 및 정상회담 정례화 합의를 주도하고 SCO 총리회담(11.2)에서 에너지 개발과 협력을 위해 'Energy Club' 창설 제안

나) EU 에너지 시장 지배력 강화

- 독일 등 주요 유럽시장으로 직접 연결되는 수송망을 통해 EU 에너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Nord Stream」을 추진
- ※ 「Nord Stream」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발틱 해저를 경유하여 직접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공급할 수 있는 1,200km의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로서 1단계는 2010년, 2단계는 2012년 가동될 예정

- EU의 對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중인 Nabucco 가스관에 대응, Nabucco 가스관의 경제성을 감소시키는 「South Stream」 프로젝트 추진

※ 「South Stream」은 노보로시스크(러)-흑해-불가리아-이탈리아/오스트리아를 연결하는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로서 가즈프롬과 ENI(이)는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에 합의(07.11.22)

※ Nabucco 가스관은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 터키와 발칸반도를 거쳐 서유럽에 이르는 3,300km 길이의 가스관 건설사업으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으로부터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

- EU의 가스 생산회사로부터 가스 수송망을 분리하는 일명 ‘망분리’ 정책은 시장경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아·태지역에 대한 가스공급 확대에 대응할 것임을 표명

다) 가스 OPEC 논의

- ‘07.4.9 도하에서 개최된 가스수출국포럼(GECF)에서 러시아의 제안에 따라 참가국들은 고위급 가스가격조정위원회 구성하기로 결정
- 천연가스의 개발·생산·저장 등의 특수성 때문에 단기간에 석유 OPEC과 같은 강력한 카르텔을 결성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가스시장이 확대·발전되면 가스 최대 수출국으로서의 영향력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러시아는 주도권을 가지고 가스 OPEC 설립 논의를 계속할 예상

※참고

한-러 에너지 협력현황

가) 서캄차카 해상광구 석유개발

- 한국석유공사와 Rosneft사는 '06.12월 본 계약 체결, '07.2월 공동운영회사 인력 파견을 통해 본격적인 물리탐사 및 '08년 탐사시추 2공 준비중

※ 한국 컨소시엄은 총 지분의 40% : 석유공사(20%), 가스공사, SK, GS칼텍스, 대우인터내셔널 각 4%, 현대종합상사, 금호석유화학 각 2%

나) 사할린-III 키린스키 광구 신규 참여 추진

- 한국석유공사는 러 컨설팅업체(TISE)와 사할린-III 키린스키를 포함한 러시아 신규광구 정보제공 및 지원을 과업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07.7월)하고 동 광구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중

다) 사할린-II LNG도입 및 러시아산 가스 추가도입 추진

- '05. 7월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II 운영사인 사할린 에너지사와 '08년부터 20년간 연 150만톤의 LNG 도입계약 체결
- '06.10월 체결된 한-러 정부간 가스협력협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Gazprom과 협력의정서(Protocol)를 채택('06.10월)하고 PNG 및 LNG 추가도입을 위해 실무 협상중
-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공급(인도시기 및 공급물량)을 위한 공동조사 시행합의('07.12.11 제8차 한-러 자원협력위)

라) 유연탄광 개발 사업

- LG상사 등 한국협의체는 '04년말 참여한 에렐탄광(매장량 236백만톤)외에 사하공화국 엘가탄광(매장량 약 21억톤)과 이나그린스키탄광(매장량 38백만톤)개발 사업 참여를 추진중

대러시아 투자현황

□ 2007년 상반기기준 국별 대러 외국인투자 실행액은 △1위 사이프러스 375억 달러 △2위 네덜란드 340억 달러 △3위 룩셈부르크 291억 달러 △4위 영국 191억 달러 △5위 독일 101억 달러 △6위 미국 74억 달러 등이며 이들 상위 10개국은 러시아 전체 투자유치금액의 88.5%를 점유

- 독일과 미국은 에너지 및 건설부문, 네덜란드는 석유 및 가스판매부문, 영국과 프랑스는 상품 및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음.
- 사이프러스와 룩셈부르크의 투자액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해당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들의 러시아기업 주식매입 확대, 자본도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된 러시아 자금이 돈세탁을 거쳐 러시아로의 역투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07년도 6월 누계 국가별 대 러시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 US\$ 백만)

구분	총계			
	합계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기타
사이프러스	37,529	24,209	1,558	11,762
네덜란드	34,094	30,879	61	3,154
룩셈부르크	29,157	730	220	28,207
영국	19,172	2,754	187	16,231
독일	10,123	3,581	41	6,501
미국	7,419	3,636	958	2,825
프랑스	6,620	932	0.4	5,688
스위스	5,911	1,447	112	4,352
영국령 버지니아 군도	3,971	2,172	95	1,704
아일랜드	3,949	441	0.3	3,508

자료 : 러시아 연방 통계청

□ 주요 투자산업은 유통, 소매업, 제조업, 자원개발, 교통 및 통신 분야이며 '05년 상반기 대비 투자가 급증한 분야는 농업(101.7%), 자원개발(104.0%), 교통 및 통신(135.3%) 등임. Expert지는 향후 유망한 외국인 투자 분야로서는 식음료생산, 소매체인점, 자동차 등 기계 조립, 전자재 등을 제시

—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도요타, 닛산, 미쯔비시, 폭스바겐 등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앞 다투어 러시아 조립공장 설립을 발표중

— 국내 기업의 경우 LG전자에서 2006년 9월 가전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 생산 중에 있으며, 롯데 백화점에서는 모스크바 중심가에 대형 백화점을 개장하여 운영중

—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등에서 현지 생산 공장 및 물류 센터를 건설